



김태만

『학력사항』

- 워싱턴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 워싱턴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경력사항』

- 현) 제4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원장
- 특허청 차장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국장
- 특허청 기획조정관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심판제1부 심판장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과장
- 특허청 기획조정관실 행정관리담당관
- 특허청 정보기획관실 정보기획담당관
- 특허청 상표의장심사국 상표심사담당관
- 1991년도 제35회 행정고시 일반행정직 합격

I. 들어가며

1985년 거의 저물어가던 12월 27일 “그래, 이젠 고시다.”라고 책상에 크게 써 붙인 후, 어언 6년. 공부하다 말고 책상에 앉드려 평평 울고 싶던 때도 많았고, 하고 싶은 일들을 이를 악물고 눌러야 했던 일도 많았던 것 같은데, 막상 돌이켜 보면 무엇이 그리 힘들었고, 무엇이 그리 하고 싶었는지 기억조차 희미합니다. 언제나 부러움의 대상이던 합격기의 주인공들, “나도 언젠가!” 하며 속으로 써 보았던 합격기가 이미 책 한권은 된듯도 한데 막상 쓰려고 하니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저 친구에게 들려주듯 혹은 일기를 쓰듯 담담한 마음으로 제 지나온 수험생활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II. 기나긴 터널의 입구에서

문득 낙조가 그 붉은 너울을 창틀에 드리우는 것을 보거나 혹은 넓은 들판에서 세찬 바람을 맞거나 할 때면 어김없이 두 주먹에 불끈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은 考試라는 긴 터널의 初入에서 겪은 나의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

1학년 말이었으리라. 그날의 강의가 끝나고 약속시간까지 어중간한 얼마간

의 시간을 죽이기 위해 텅빈 강의실에 무료히 앉아 있었는데, 누군가 흘리고 간듯 책상위에 교재 아닌 책 한권이 눈에 띄었다. 집어보니 『다시 태어난다 해도 이 길을』이라는 긴 제목의 책이었다.

처음에는 심심파적으로 뒤적이다 이내 책속으로 빨려 들었다. 약속도 잇는채 허겁지겁 다 읽고 냈을 땀, 강의실 가득 노을빛이 붉게 채워져 있었고, 나는 두려움과도 흡사한 묘한 감동으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내가 이렇게 까지 힘들고 험한 길로 들어서고야 말았는가? 그때 내가 느낀 것은 분명 두려움이었다. 저 멀리 동전만하게 출구가 보이는 기나긴 터널, 옆으로 빠지는 길도 없고 뒤로 돌아나올 수도 없는 긴긴 터널 앞에 홀로 선듯한 아득한 두려움이었다. 고시선배들의 핏빛 발자욱 속에서 희망보다 두려움을 먼저 발견한 것은 이후의 나의 고시생활의 신산스러움에 대한 예감때문이었으리.

그러나 고시와의 대결을 먼 후일의 일이라 애써 외면하면서,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 캠퍼스의 생활속으로 숨어들었다. 이때의 내 생활은 'POSSIBLE' 이라는 동아리(circle)를 제외하고는 얘기할 수 없다. 'POSSIBLE'과 함께한 2년간은 나의 지나온 날들 중 유일하게 흑백 아닌 총천연색 필름으로 찍은 사진을 보는 것처럼 추억되는 기간이다.

유쾌하고 선량했던 친구들, 처음 접하는 그 예쁘고 재치있었던 여자애들, 갖가지 다채로운 행사들, 행사준비로 밤늦게까지 연습하던 합창곡, 연극, 허슬.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한 지리산 뱀사골 산정에서의 별빛, 반변천의 물소리, 송정의 술밭에서의 바람소리, 해동수원지의 갈밭, 낙동의 모래밭, 그 속에서 엮어진 서툰고 그래서 더욱 가슴 아리던 우리네 사랑

들, 사랑얘기들... 추억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 입가에는 흐뭇한 미소만 감돈다.

그러나, 2학년 종강이 가까워져 오면서 어느덧 대학 생활의 半을 마감한다는 실감과 함께 이젠 정말 考試에 대한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조바심이 나를 옥죄기 시작했다. 저 시켜면 동굴 속으로 나 혼자 들어설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돌아서야 하나? 결단은 쉽지 않았고, 시간은 쉽게 흘러갔다. 그해 12월말 어느 오후에, 나는 세찬 강바람을 맞으며 낙강강변을 걷고 또 걸었다. 그리고 구포다리를 건너 김해 평야를 가로질러 붉은 노을 속에 하염없이 걸었다.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도표, 고시를 할 경우 잃을 것과 얻을 것이 기입된 대차대조표가 서서히 완성되고 있었다. 완전히 짊짊해진 뒤에야 학교로 돌아왔다.

그리고 社會大 精讀室 내 자리에 크게 써 붙였다. “그래, 이제 고시다.”

Ⅲ. 터널 속에서

1. 기분 좋은 출발(제30회)

기분 좋은 출발이었다. 먼저 새해 달력에서 6월 29일까지 붉은 글씨로 표시된 날을 모두 까만 글씨로 고쳤다. 1차시험이 끝나는 그날까지 휴일은 없다는 각오였다. 또 하루를 3등분하여 매일 세과목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8시까지는 정독실 내 자리에 앉는다. 그리고 12시까지 4시간은 영어, 점심을 먹고 1시부터 5시까지는 국사, 저녁먹고 6시부터 10시까지는 헌법, 그리고 귀가하여 야식을 먹고 11시까지는 다시 책상에 앉아 그날 계획 중 실천하지 못한 부분을 끝내고, 모두 실천되었으면 일기를 쓰고 잠자리에 든다. 이런식으로 1월 한달 동안 이재욱 TOEFL의 半과 국사 및

헌법의 교재 한권씩과 문제집 한권씩(권영성 원론, 구병삭 문제집, 이기백 한국사신론, 변태섭 문제집)을 각각 독파했다. 2월에는 국사, 헌법 대신에 행정학, 민법(김규정 원론 4인 공저 문제집, 곽윤직 민법총칙, 송희성 문제집)을 넣어, 같은 방식으로 공부했다. 잊지 못할 두달간이었다. 8시에 자리에 앉으며 총장공관 쪽으로 난 창을 내다보면서, 꿀밤나무가지에 아직 머뭇거리고 있는 여린 어스름을 확인하고 의식적으로 12시까지는 고개를 쳐들지 않고 공부하다가, 12시에 점심을 먹으러 일어설 때보면 어느덧 그 가지에 눈부신 정오의 햇살이 부서지고 있음을 보는 것이 재미있었고, 마찬가지로 5시에 그 가지에 어느덧 저녁어스름이 걸려 있는 것과, 10시에 그 가지에 못별들이 열려있는 것을 보는 것이 기뻐다.

물론 공부하는 것이 버릇이 되지 않아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이 괴롭기도 했고, 끊임없이 파고드는 잡념을 쫓느라 귀밑머리도 꽤나 뽑았다. 그 때의 생활을 내 일기는 '딱 찬 것도 같고 텅빈 것도 같은 생활'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2월은 짧다. 그런 이유로 2월은 더욱 짧아 지기도 한다." 그 때 친구의 편지말처럼, 2월분으로 배당된 공부량을 다 채우지 못한 채, 짧은 2월을 보내고 새 학기를 맞았다. 교정은 오랜 동면에서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그 동안의 강행군으로 지칠만큼 지친 心身은 싱그러운 바람과 다사로운 햇살과 노란블라우스의 나풀거림을 못 견뎠다.

주 21시간의 수업은 매일 나를 정독실에서 불러내었다. 강의실을 오가는 길은 꽤나 멀었고, 정겨운 친구들과 만나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 주었다. 자판커피 한잔이 어느덧 저녁 술자리로 이어지는 일이 빈번해지고, 한 편으로는

리포트, 중간, 기말고사 등으로 考試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자꾸 뺏어 갔다.

계획은 세우기가 바쁘게 허물어졌으며, 考試는 다시 넘지 못할 거대한 산맥으로 두려움의 대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고, 하루에도 몇 번씩 낙방에의 예감 때문에 변민해야 했다. 축소하고 축소해도 계속 허물어지는 계획을 붙잡아 보려고 무리를 했는지 3월이 다 가기도 전에 몸에 이상이 왔다. 노란 위액까지 몽땅 토해내며 밤새 앓다가 병원에 가니 장염이라 했다. 5일을 참담하게 누웠다가 일어나니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다. 그래 두려워 말고 침착하자. 허둥대지 말자.

"人間은 약한 存在이다. 겁을 먹고 물러서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背水의 陣을 치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데 발전이 오는 것이 아닐까?"

요즘 '바람의 파이터'로 더 유명한 최배달翁의 이 말은 그때도 그랬지만, 그후에도 언제나 내가 벽찬 상대나 새로운 일거리와 대면하여 망설여질 때면 떠올리고 용기를 얻는 말이다.

이 일이 있고부터는 허겁지겁 식사하는 것을 삼갔고, 식사후에는 산책과 운동을 했으며, 토요일에는 오전까지만 공부하고 오후에는 정독실 멤버들을 부추겨 학교 뒤 동래산성까지, 임진왜란 때 왜병들의 진격로였을지한 산길을 헉헉 대며 올라가, 산성막걸리와 도토리묵으로 땀을 식히고, 어둠이 내리는 산길을 고향도 지르고 노래도 부르며, 달빛 밟아 내려오곤 했다. 일요일에는 좀 늦게까지 폭자고 등교하여 모의고사를 치고 틀린 문제를 체크하는 것으로 주말을 조금 여유있게 설계했다. 모든 일에는 리듬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귀중한 체험이었다.

한 시간은 길고 고통스러웠어도 한달은 무

척 짧아 4, 5월이 금방 지나고 6월이 오자, 다시 어쩔 수 없는 긴장감이 온몸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주위에는 수업과 기말시험을 포기하고 시험에만 매달린다는 사람이 늘어 갔다. 난 그럴 수가 없었다. 당시 40만원에 미달하던 아버지 봉급만으로 온 가족이 생활하던 家計에, 조금만 더 힘써 공부하면 사십만원이라는 어마어마(당시 생각으로는 조금도 과장없이 어마어마한 액수였다)한 등록금을 절약할 수 있는데 하는 생각때문이기도 했지만, 해야 할 일을 빼먹고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왠지 뒤가 찝찝해서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못하는 성격 때문에, 힘들더라도 병행하기로 하고, 결의를 다지기 위해 삭발을 해버렸다. 자연 시간이 부족했고, 수면시간을 줄일 수 밖에 없었다. 기존 패턴에서 저녁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3시간을 더 추가하여 도합 15시간을 책상에서 버티려고 했다. 물론 무리한 계획이었고 책상에 앉아 있으되 즐기거나 명칭해져 있는 시간이 많아, 투자한 시간만큼의 능률은 오르지 않았으나, 몸은 투자한 시간 이상으로 혹사당했다. 지독히 힘들고 길었던 한달이 지나고 1차시험을 치르고 나왔을 땐, 흥가분하기 보다는 차라리 허탈하였다. 다만 교문 앞에서 기다리던 친구들에게, “합격은 안될지 몰라도 내년에 다시 하라고 해도 이 이상은 할 수 없다. 지금 떨어진다면 그것은 내 능력의 한계이고, 내년이라도 극복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고 거리낌없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이, 6개월 동안의 노력이 거둔 보람이리라 생각했고,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리라 생각했다. 최소한 미래의 어느 힘든 날에 미련과 후회로 고시를 돌아보지는 않을테니까.

모든 정영을 다 쏟아버린 것처럼, 왠지 견딜 수 없는 허탈감으로, 친구들과 배낭을 메고 나

다니다가 1차 합격소식을 들었다. 내 생애에서 가장 기뻐던 날이었다. 아니 차라리 온몸을 휘감는 전율이었다. 땀흘려 거둔 성취만큼 참된 기쁨을 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해준 값진 체험이었다.

2. 고난과 좌절(제32회)

그러나 1차합격은 기분 좋을 출발에 지나지 않았다. 합격의 기쁨은 잠시 새로운 종류의 어려움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해이해진 마음을 다시 다잡는 것. 혼자 공부해야 하는 애로(주위에서 1차 통과는 혼자였다), 처음 접하는 2차의 방대한 공부량등이 나를 짓눌러 왔다. 그 무엇보다도 나를 괴롭힌 것은 도대체 공부의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1차 시험은 기출문제도 있고 정답도 있어, 목표치를 가늠할 수 있고, 스스로를 평가하여 그 편차를 줄여 갈 수 있었다. 즉 목적지가 보였으므로 힘들어도 달려갈 수 있었다. 그러나 2차는 그것이 아니었다. 어디를 보고 어떻게 뛰어 애 할지 암담했다. 의지할 데라곤 고시잡지의 합격기뿐이었다. 여기서 읽은 것은 대부분 단권화다 목차정리다 하는 기술적인 것이었고, 이에 따라 나도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내용의 이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도 그것을 제쳐두고 형식에 치우쳐 단권화니 서브노트니 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정독할 생각은 않고, 책을 떼었다 붙였다 하고 목차를 베끼고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한숨이 나온다. 더구나 애써 획득한 기득권을 놓치지 않을 까하는 조바심 때문에 조용히 생각하면서 반복해 읽어도 정확한 이론의 이해가 쉽지 않았을 행정법이나 경제학을 속독으로 죽죽 읽어댔다. 눈은 글자를 따라가고 있어도 내용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뭔가 새롭게 깨닫는 것

이 있고 쌓이는 것이 있어야 공부도 흥이 날 텐데, 책을 펼치면 숨부터 막히고, 마음만 급해 왔다. 점점 책상에 앉기가 두려워져 생활이 걸 돌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한학기가 지나고 나니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되었다. '서울에 가면'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방학을 이용해 봉천동 C고시원에 들어 갔으나, 지독한 외로움만 만끽하고 한달만에 낙향했다.

1987년의 봄은 또 다른 측면으로 나를 괴롭혀 왔다. 박종철군 사건으로 불붙기 시작한 민주화의 열기는, 그 해 여름까지 온통 교정을 휩쓸었다. 구체적인 행동은 못하면서도 여러 신문문을 탐독하여 행간을 읽으려고 애쓰고 TV 화면에 신경을 집중시키며, 안타까워 하는 동안 시험은 성큼 눈앞으로 다가왔다. 마음을 다 잡고 다시 공부하려 했으나 이미 불가능한 도전이었다. 그러나 그때는 그것도 모른 채, 최선을 다하여 바둥댔으며, 시험 일주일 전에는 눈병이 나서, 친구 승환이가 읽어주는 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부산을 떨었으나, 결과는 정치학 과락을 포함해 평균 7점 정도의 현격한 차이로 낙방하고 말았다. 낙방을 확인하고 뒤늦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준비를 했으나 또 한번 실패하였다.

졸업식을 맞는 내 심정은 참담했다. 그러나 몇번의 실패는 머리에 뒤집어 쓴 찬물과 같아서 정신이 번쩍나게 했고, 考試나 行大가 요구하는 공부수준이 내가 투입해야 한다고 믿는 것보다는 훨씬 높다는 것을 실감하게 해주었다.

3. 힘겨운 再起(제32회)

1988년은 또 다른 시련을 나를 위해 준비해 놓고 있었다. 어머니, 언제나 나의 정신적 支柱셨던 어머니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신 것

이다. 병원에서도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하여, 집에 모셔 놓고 있었는데, 나 이외에는 간호할 사람이 없어 집 근처에다 독서실을 잡아 놓고 수시로 드나들면서 공부했었는데, 누워 계시는 어머니를 홀로 남겨두고 집을 나설 때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언제 임종하실지 모르는 어머니를 두고 공부하겠다고 나서는 내가 천하의 불효자라는 생각에 몸들 바를 몰랐다. 그러나 또 한편 경쟁은 냉정한 것이라는 생각에 책상에 앉아 허겁지겁 공부하다 식사를 챙겨 드리기 위해 집에 돌아오면, 혼자 누우신 채 회심곡이나, 불경을 들으시던 어머니, 조용히 죽음을 응시하시는 모습, 하루 종일 미동도 없으시고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를 조금도 내색은 않으셔도, 얼마나 괴로우실까, 내가 붙어 앉아서 다리도 주물려 드리고 얘기상대도 해드리면 잠시나마 고통을 잊으실 수 있을 텐데하는 생각에 또 다시 뜨거워지는 눈을 꿈벅이다가, 미어지는 가슴으로 집을 나설 때면, 찬란하기만한 날씨가 왜 그리도 밍던지... 이 때의 이야기는 그만 쓰기로 하자. 쏟아지는 눈물 때문에 몇번을 멈추고, 담배를 몇 개피째 갈아피워도, 다시 쓸 용기는 나지 않는다. 내 가슴 속에 언제까지나 묻어두는 수밖에.

4. 아득한 절망(제33회)

제32회에서 다시 1차는 통과했으나, 2차는 여전히 내겐 미로였다. '역시 行大'하면서, 좀더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으나, 시험 하루 전날 결국 어머니가 운명하셨고, 회한 속에 장례를 치르고 났을 땐, 이미 모든 것이 지난 뒤였다.

새 학기의 시작에 즈음하여, 태환이 등과 만나게 되어, 같이 스테디를 하였는데, 그 당시로는 의욕에 불탔고, 지난번 시험에 대비하여

볼 때, 현격한 실력향상도 있었다고 생각되었으므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결과를 기다렸으나 낙방이었다. 다시 2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 아르바이트에서 밤늦게 돌아와 서울로 전화하여 낙방소식을 듣고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신문을 사러 나가시는 소리에 놀라 그러실 필요없다고 만류하려고 일어서다 그대로 쓰러졌다. 손을 짚는다고 짚었는데, 그것도 제구실을 못 해서 폭삭 쓰러졌다. 아무 생각 없이 누워 있었던 것 같은데 밤을 뜬 눈으로 세웠고 그래서인지 팔다리가 심하게 뭉쳐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젠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이것이 능력의 한계라는 것이다. 그 동안의 땀과 눈물이 물거품이 되었지만 능력 밖의 것을 탐하며 허송세월하기보다는 더 늦기 전에 내게 맞는 길을 찾아보자. 가슴이 몹시 아렸으나, 아득한 절망이 도출한 이 결론에 반박할 근거는 없었다. 며칠 뒤 6개월 방위복무를 명하는 입영영장이 구원처럼 날아왔다.

5. 실패에서 발견한 희망(제34회)

누가 뭐라 하든 훈련병 시절을 내게 축복이었다. 신체적 단련만을 강요하는 생활은, 머릿속에서 온갖 걱정과 좌절감, 실패감 같은 감정의 찌꺼기를 몰아내주었고, 또 여유를 가지고 나를 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강건한 육체와 정신을 되찾게 해주었다. 군복무 중에 1차를 통과하면 내년까지는 어떻게 해 볼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과 하루하루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이 아까워, 34회 행시에 응시했으나 낙방이었다. 이젠 1차에서조차 떨어지는구나 하는 비감한 생각에 젖어 있다가, 문득 '나도 준비가 부실하면 1차에도 떨어지는

구나. 문제는 능력보다도 준비가 아닌가? 2차도 철저히 준비하면...'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그러나 여건은 좋지 못했다. 언제나 생활비에 미달하는 수입을 위해, 거의 막노동에 가까운 힘든 일을 하고 계신 아버지, 재수를 하고 있는 동생, 대학을 졸업하고도 몇 년째 허송하고 있는 나 이렇게 세 사람이 만들어 가는 생활은, 언제나 모래알처럼 서걱되었으며, 일촉즉발의 위기감 같은 것이 감돌고 있었다. 6월 3일 제대를 하고부터는 과외지도에 몰두했다. 경제적 압박이 풀리면 집안 분위기가 다소나마 완화될까하는 기대와, 취직을 하던, 대학원 진학을 하던, 아직 몇 달의 시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악착같이 과외지도에 매달렸다. 한꺼번에 7명의 학생을 동시에 지도했는데, 하루에 두명씩 하루도 쉬지 않고, 뛰어다니면서 지도하고, 식사준비, 청소빨래 등 살림살이도 해나가자니 피곤하여 지하철에서 선 채로 코피를 쏟은 적도 있었다. 자연 공부할 여유는 없었고 하루하루가 의미없는 허송세월로 느껴졌다. 따라서 앞날에 대한 번민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고, 끝내 잠 못 드는 밤에는 텅 빈 밤거리를 쏘다니곤 했는데 어느 날은 주민의 신고로 경찰의 불심검문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는 사이, 취직 철이 성큼 다가왔다. 구체적인 결단이 요구되었다. 이젠 정말 끝이다. 고시에 대한 미련은 이쯤에서 접기로 하자. 몇 개 그룹사의 원서를 구해서, 작성하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의 주된 의논상대였던 큰 누나를 찾아 갔다. 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누나는, "당장 공부해서 그렇지, 돈을 버는 일이 그렇게 한두달을 다투는 시급한 문제는 아니다. 대학원 시험이 한달 남았다니 최선을

다해서 해봐라. 취직은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고, 만약 걸리면 학비는 내가 대줄테니 마지막 한풀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봐라.”고 했다. 나는 이 말에 용기백배하였으나, 남은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러나 오직 공부에만 모든 시간을 집중한다면, 한달도 무척 긴 시간이라는 생각으로, 우선 모든 과외지도를 중단하고, 집안살림도 팽개치고 짐을 챙겨 집을 나왔다. 선선히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밖에 드릴 말씀이 없었다.

한달이나마 공부에만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이 너무도 고마워 정말 신들린 것처럼 힘든 줄도 모르고 달리고 또 달렸다. 경호가 준 자료도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6. 행정대학원

어느 정도 뿌듯함과 기대를 안고 상격했으나, 웬지 불청객이 된 듯한 느낌에 쭈뼛거리다가, 도서관 앞에서 태환이를 만났다. 그는 재작년 나와 함께 낙방한 후에, 작년에 다시 1차를 통과하여 2차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이후 나는 태환이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아니 그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동시합격을 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하루도 빠짐없이 등교하는 성실성과, 잘 정리되어 있는 머릿속에 쌓여있는 지식들은 언제나 내게 신선한 자극이었고, 식후 산책 중에 대화를 통해 전해주던 지식은 1차 부담으로 따로 2차 준비를 할 수 없었던 나에게 귀중한 공부가 되었다.

7. 터널의 출구(제35회)

한달에 한번 정도의 인터벌로 있던 태환이와의 술자리가 네 번쯤 지나가고, 대학원 첫

학기 강의가 거의 끝날 무렵에 1차 시험을 치렀다. 예년에 비해 훨씬 어려웠으며 따라서 합격을 확신하기 어려웠지만, 내년에라도 필요하겠지 하는 심정으로, 2차 공부를 진행시켜갔다. 1차 기득권을 가지고 공부하던 태환이, 그리고 변리사 준비를 하던 미영이가 흔들림 없이 공부하고 있어서, 큰 진폭 없이 공부했었으나, 막상 발표날에는 불안감으로 공부를 할 수 없었다.

국민윤리를 제외한 6과목을 겨우 1회독 할 즈음엔 이미 2차가 성큼 다가와 있었다. 결국 국민윤리는 못 보고 들어갔으나, 교과서적인 지식을 묻는 문제가 아니어서, 차분히 생각을 정리해서 썼으며, 다른 과목들도 경제학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무난하게 출제되었다는 느낌을 받으며, 20분 정도씩을 초안 작성에 투자하면서, 될 수 있으면 잘 정리되고 논리가 흐트러지지 않은 답안을 쓰려고 노력했다.

두어 달 뒤, 막상 합격을 확인 했을 땐, 그저 담담했다. 긴 여정의 종착지로는 다소 싱겁기까지한 결말이었으나, 후회는 없다. 걸을 만큼 걸어왔다고 생각되므로, 성적도 평균 61.38로 과분하게 느껴질 정도로 나왔다.

IV. 터널을 지나서

1. 몇 가지 조언

시행착오로 점철된 제 수험생활을 회고해보면서, 좀 더 효과적인 공부방법을 묻는 분들께, 주관적이고 사소한 조언이나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집니다. 첫째는, 어떤 한 책을 정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縱적으로 읽으려고만 하지 말고, 몇 가지 대표적인 교재를 선정해서 어떤 한 가지 Topic에 대해서 각 교재들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유의하면서 橫적

으로 읽는 습관을 기르는 게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과 노력은 많이 들겠지만, 각 교재를 비교하기 위해, 그 Topic을 적어도 교재 수만큼은 반복하여 읽어야 하므로 쉽게 친근해지고, 또 비교하는 과정에서 교재들 간의 일치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면, 이들 차이점은 왜 생겼으며, 이를 해소하여 종합할 수 없겠는가? 등의 문제의식이 솟아나, 공부에 흥미도 느끼게 되고, 그만큼 이해도 깊어져 피상적으로 여러번 읽은 것보다 오히려 더 쉽게 핵심에 접근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둘째는, 적절한 분량의 Sub-note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너무 완벽한 서브를 욕심내다 보면, 시간에 쫓기어 중도에서 포기해야 하는 일이 생기며, 너무 간략한 서브는 미덥지가 않아서 있으나마나 한 것이 됩니다. 적어도 소목차와 그 속에 들어갈 내용의 요지까지를 정리해 놓은 서브는 시험 막바지에 가서 상당한 자신감을 주며, 또 정리하는 과정에서 논리력 표현 등도 길러줍니다. 이 경우에도 어떤 교재를 그대로 요약하기 보다는, 교재들을 비교하면서, 각 교재의 장점들을 취사선택하는 방법으로 하되, 나중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서브에 참고한 책명과 그 PAGE 수를 기입해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셋째, 적절한 생활 리듬을 지킴으로써 건강을 유지하실 것과, 여건이 허락하면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공부하실 것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2. 감사의 말씀

혼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지난날을 회고하다보니 어느덧 창밖이 뿌옇게 밝아옵니다. 참으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음을 새롭게 실감하는 시간입니다. 평생을 가족들을 위해서만 사시다 가신 어머니, 아무리 밤늦게까지 공부해도 저보다 일찍 주무신 적이 없었고, 제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셔서 정한수에 저의 성공을 비시던 어머니, 그리고 자식교육에서만 보람을 느끼며 당신의 고생을 마다 않으시던 아버지, 스물여덟에 혼자되신 후, 평생을 고생만 하시면서 나 하나 잘되기만을 기원하시는 또 한분 어머니, 백모님인 동시에 나의 양어머니이신 분, 언제나 따뜻한 위로와 조언을 주시던 누나 자형들, 그리고 같이 공부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었던 태환이와 미영이, 수험기간동안 도움을 주셨던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목표를 향해 정진하고 계실 수험생 여러분의 건투를 빌어봅니다.